

한주간 쉽게 보는

국내 미래산업 연구 및 정책동향

Domestic Future Industry Research and Policy Trends

No. 100



Contents



※ 2025.10.16(목) 기준(대상 기간 : 2025.10.10.~2025.10.15.)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1

■ 탄소중립 분야	1
– 허영 의원,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재정투자 계획 미이행 지적(2025.10.12)	1
– 창원특례시, 환경부 '2025 탄소중립 우수사례' 최고상 수상(2025.10.10)	1
– 삼척시탄소중립지원센터, '기후위기 시대의 AI' 주제로 콜로키움 개최(2025.10.10)	2
– 광진구, '친환경 행사 지침' 마련으로 탄소중립 실천 선도(2025.10.10)	2
– 김포 마산도서관, 초등학생 대상 탄소중립 체험 프로그램 운영(2025.10.10)	2
– 경산시 탄소중립 서포터즈, 지하철역에서 피켓 홍보 캠페인 전개(2025.10.10)	3
– 천안YMCA, '녹색건축 아카데미' 개강으로 탄소중립 건축 해법 모색(2025.10.10)	3
– 보령시,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분야 신규가입 이벤트 추진(2025.10.12)	4
– 청주시 탑대성동, 재활용품 수집 행사 '재수좋은날' 진행(2025.10.12)	4
– 방세환 광주시장,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강조(2025.10.12)	4
– 연천군, 유네스코 연천 탄소중립 군정 아이디어 공모전 성료(2025.10.13)	5
– 관악구, 청소년이 직접 제작한 탄소중립 영상으로 지역사회 실천 유도(2025.10.13)	5
– 구미시, 대한민국 1호 탄소중립 산단 조성으로 에너지 혁신 도시 도약(2025.10.13)	6
– 청송군의회, 임시회에서 탄소중립 기본계획 등 주요 현안 처리(2025.10.14)	6

- 포항시 탄소중립지원센터,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주제로 포럼 개최(2025.10.15) 6

- AI 분야 7

- 대통령실, '모두를 위한 AI' 전략과 글로벌 AI 3강 연대 구상 발표(2025.10.10) 7
- 한미동맹의 AI 전환, 국방비 증액으로 국방 AI 생태계 조성 필요(2025.10.10) 8
- 기재부, 외청과의 협업 강화로 AI·현장안전 등 행정혁신 추진(2025.10.10) 8
- 경기도, AI·바이오 산업 생태계 전략 필요성 강조(2025.10.10) 8
- 강원도, 동절기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시행(2025.10.10) 9
- 전북, 피지컬 AI로 제조업 한계 극복 및 성장동력 확보(2025.10.10) 9
- 춘천시, AI·양자·바이오 융복합 대전환 심포지엄 개최(2025.10.10) 10
- 강원특별자치도, 'AI 팩토리 선도 프로젝트' 선정으로 국비 44억 확보(2025.10.10) 10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11

- 탄소중립 분야 11

-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APEC 앞두고 중국 방문하여 경제 협력 논의(2025.10.12) 11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회,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개최(2025.10.12) 11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12

■ 탄소중립 분야 12

- iM뱅크, 1100억 원 규모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으로 탄소중립 금융 지원 강화 (2025.10.13) 12

■ AI 분야 13

- LG 3사, '원 LG' 통합 솔루션으로 AI 데이터센터 시장 공략 가속(2025.10.10) 13
- 에코프로, AI 자율제조 통해 2027년까지 생산성 30% 향상 목표(2025.10.10) 13
- 빅테크, 피지컬 AI 시대 주도 위해 로봇 기업 인수 활발(2025.10.10) 14
- 젠슨 황, AI 산업 성장 낙관론에 국내 HBM 기업 수혜 전망(2025.10.10) 14
- 누비랩, AI 급식관리 플랫폼 '쌉쌉머니' 인천대에 도입(2025.10.10) 14
- 오픈AI, 전남에 데이터센터 구축 MOU 체결로 지역 산업 기대감 상승(2025.10.10) 15
- 코난테크놀로지, 자체 LLM 기술력으로 AI 시장 공략(2025.10.10) 15
- AI 메모리 수요 폭증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3분기 실적 기대감 고조(2025.10.10) ... 15
- 오픈AI발 메모리 수요 폭증, 슈퍼사이클 속 시장 경쟁 구도 변화 예고(2025.10.10) 16
- 파인더스에이아이, 비전 AI로 무인매장 보안과 결제 문제 동시 해결(2025.10.10) 16
- 파인더스에이아이, 비전 AI로 무인매장 보안과 결제 문제 동시 해결(2025.10.10) 17
- 프로티나, PPI 빅데이터 기반 AI로 바이오메터 시장 공략(2025.10.10) 17
- LG유플러스, 홈 서비스 현장에 자체 개발 'AI 업무 비서' 도입(2025.10.10) 17
- 그리다에너지, 'AI TECH+ 2025'에서 미래 에너지 운영기술 공개(2025.10.10) 18
- 현대차-플러스AI 협업 무인 수소트럭, 타임지 '최고 발명품' 선정(2025.10.10) 18
- 국내 통신 3사, 'K-인공지능(AI)' 주도권 확보 경쟁 본격화(2025.10.11) 19
- 한양대 ERICA, BK21 사업 선정으로 피지컬 AI 인재 양성 가속(2025.10.10) 19
- KAIST 경영대학, AI·데이터 시대의 융합형 인재 양성 선도(2025.10.10) 19

- 상지대, 강원지역 최초로 AI 관련 최고경영자과정 개설(2025.10.10)	20
- 세종대 산업대학원, 부동산AI융합학과 신설 및 2026 전기 석사 모집(2025.10.11)	20
-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중국, 희토류 통제 강화로 협상력 제고(2025.10.10)	20
- 미국 증시, AI 거품론 논란 속에서도 반도체 주도 상승세 지속(2025.10.10)	21
- 인텔, 초소형 컴퓨터 플랫폼으로 피지컬 AI 시장 본격 공략(2025.10.10)	21
- 블룸버그, 엔비디아가 일론 머스크의 xAI에 20억 달러 투자 보도(2025.10.10)	22
- 유럽 AI 스타트업, 대규모 투자 유치하며 기업가치 급등(2025.10.10)	22
- AI 기술의 버블 논쟁과 혁신의 양면성 분석(2025.10.10)	22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허영 의원,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재정투자 계획 미이행 지적(2025.10.12)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재정투자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 지난 3년간 계획 대비 82.8% 수준인 40조 7,000억 원의 예산만 편성되어 약 9조 원이 과소 편성되었다고 밝힘 - 예산 편성률은 2023년 96%에서 2025년 74%로 해마다 축소되는 추세임. 특히 핵심적인 '감축·전환 사업' 예산이 줄어든 반면, 실효성 논란이 있는 '국제협력 사업' 예산은 계획 대비 126%로 초과 편성됨 - 허 의원은 전 세계적인 탈탄소 경제 전환 상황에서 이행 속도가 늦어지면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함. '2030년 탄소배출 4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관리체계 강화를 촉구함. 원문 제목: 정부 '탄소중립 재정투자계획' 대비 예산 해마다 축소...허영 "尹 정부 9조원 과소 편성" 지적
지자체	□ 창원특례시, 환경부 '2025 탄소중립 우수사례' 최고상 수상(2025.10.10) - 경남 창원특례시가 환경부 주관 '2025년 지자체 탄소중립 우수 사례' 공모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1등을 차지하며 환경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음. 이번 수상은 전국 76개 지자체가 제출한 우수사례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창원시는 기초지자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함 - 창원시는 기업, 시민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고 독창적인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음. 주요 정책으로는 중소기업 에너지 컨설팅, 시민 참여형 기후행동 재테크, 기후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 3개 분야의 차별화된 탄소중립 모델을 구성하여 추진한 점이 꼽힘 -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수상이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이룬 값진 성과임을 강조함.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지속하며 선도 지자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함. 시상식은 11월 여수에서 열리는 '지자체 탄소중립 컨퍼런스'에서 진행될 예정임. 원문 제목: 창원특례시, 환경부 '2025 탄소중립 우수사례' 최고상 영예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삼척시탄소중립지원센터, '기후위기 시대의 AI' 주제로 콜로키움 개최(2025.10.10) - 삼척시탄소중립지원센터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2025 제2차 삼척시 탄소중립 콜로키움'을 개최함. 행사는 10월 27일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에서 열릴 예정임 - 이번 콜로키움은 '기후위기 시대의 AI: 새로운 기후 해법인가? 리스크인가?'를 주제로 진행됨. 강원대학교 오승민 교수의 발제 이후,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시간이 마련됨 - 센터는 이번 행사를 통해 인공지능(AI) 기술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진단하고,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이번 논의가 미래 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의 장이 되기를 기대함. 원문 제목: 삼척시탄소중립지원센터,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토론의 장 마련
	□ 광진구, '친환경 행사 지침' 마련으로 탄소중립 실천 선도(2025.10.10) - 서울 광진구가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목표로 구 주관 각종 행사에 적용할 '친환경 행사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함. 이 지침은 행사 준비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에서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음 - 주요 내용은 일회용품 최소화, 종이 없는 행사, 친환경 기념품 사용, 에너지 절약, 분리배출 관리 등 5개 분야로 구성됨. 개인컵 지침 안내, 다회용컵 대여 지원, 모바일 안내문 활용, 친환경 인증 제품 우선 사용 등을 권장함 - 구는 행사 기획 단계의 사전 점검과 종료 후 결과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지침의 실질적 이행을 확보할 방침임. 김경호 구청장은 이번 지침 이행으로 행사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4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구가 모범을 보여 친환경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힘. 원문 제목: 광진구, 일회용품 최소화 등 '친환경 행사 지침' 마련... 탄소중립 실현 앞장
	□ 김포 마산도서관, 초등학생 대상 탄소중립 체험 프로그램 운영(2025.10.10) - 김포시 마산도서관이 다음 달 8일, 초등학교 2~4학년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어린이 프로그램 '책풍당당-지구를 위한 작전명 제로'를 운영함. 이번 프로그램은 어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린이들의 환경 인식을 높이기 위해 기획됨 - '올해의 환경책'으로 선정된 '탄소중립! 환경 버스킹'의 저자 이명희 작가가 직접 진행을 맡음. 작가는 아이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할 예정임 -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마산도서관 홈페이지나 현장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20명을 모집함. 아이들이 책과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배우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됨. 원문 제목: 김포시, 초등생 대상 '탄소중립' 체험 프로그램 운영
	□ 경산시 탄소중립 서포터즈, 지하철역에서 피켓 홍보 캠페인 전개(2025.10.10) - 경산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대학생 서포터즈와 함께 대구 도시철도 2호선 정평역-임당역 구간에서 '탄소중립 서포터즈 피켓 홍보 캠페인'을 진행함. 이번 캠페인은 시민들의 탄소중립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됨 - 캠페인은 출근 및 등교 시간대에 맞춰 진행되어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함. 서포터즈들은 피켓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의 필요성과 생활 속 참여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함 - 센터 관계자는 생활 속 작은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권 중심의 주기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탄소중립 메시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임을 밝힘. 경산시 역시 시민 참여 활동의 확산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것을 강조함. 원문 제목: 경산시 탄소중립 서포터즈, '지하철역 피켓 홍보 캠페인' 전개
	□ 천안YMCA, '녹색건축 아카데미' 개강으로 탄소중립 건축 해법 모색(2025.10.10) - 충남 천안YMCA가 10월 15일부터 총 4회에 걸쳐 강좌와 탐방으로 구성된 '2025 천안시 녹색건축 아카데미'를 개최함. 이번 아카데미는 기후위기 시대에 건물 부문 탄소 배출 저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됨 - 아카데미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 그린리모델링, 패시브 건축기술 등 다양한 주제의 전문가 강의를 진행됨. 또한, 서울 노원구 EZ센터와 실증 주택단지 탐방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 추진 사례를 직접 확인할 예정임 - 천안YMCA는 에너지 자립률이 낮은 천안의 현실을 지적하며,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천안형 녹색건축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함.원문 제목: ‘녹색건축 아카데미’ 15일 개강…탄소중립 건축 해법 모색
	□ 보령시,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분야 신규가입 이벤트 추진(2025.10.12) - 보령시가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신규 가입자 대상 이벤트를 10월 31일까지 실시함. 신규 가입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임 -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가정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약하면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참여형 온실가스 감축 제도임. 적립된 포인트는 현금 등으로 수령 가능하여 환경 보호와 경제적 혜택을 동시에 제공함 - 현재 보령시에서는 약 8,900여 명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200건의 신규 가입을 목표로 함. 시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기를 기대함.원문 제목: 보령시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분야 신규가입 이벤트 추진
	□ 청주시 탑대성동, 재활용품 수집 행사 '재수좋은날' 진행(2025.10.12) - 충북 청주시 상당구 탑대성동 행정복지센터가 지난 10일, 탄소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하는 '재(활용) 수(집하기) 좋은날' 사업을 진행함 - 이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재활용 참여를 독려하고 자원 순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됨. 주민들이 직접 재활용품을 수집하며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기회를 가짐 - 탑대성동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주민 참여형 환경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내 탄소중립 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임.원문 제목: 청주시 탑대성동, 탄소중립사업 '재수좋은날' 진행
	□ 방세환 광주시장,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강조(2025.10.12) - 방세환 광주시장이 '3대가 행복한 그린도시'를 목표로, 시가 추진해 온 친환경 인프라 조성 과 녹색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함. 미래 세대로부터 빌려온 지구를 위해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이 필수 과제임을 역설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광주시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 목재종합교육센터 건립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음. 이를 통해 에너지 자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함 - 시는 환경과 경제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주거와 산업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함.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광주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가장 큰 힘이라고 당부하며, 자연과 사람이 조화되는 도시를 향한 의지를 표명함.원문 제목: [자치단상] 지속가능한 도시 광주-탄소중립과 녹색성장
	□ 연천군, 유네스코 연천 탄소중립 군정 아이디어 공모전 성료(2025.10.13) - 연천군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유네스코 연천 탄소중립 군정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함. 공모전은 기후 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참신하고 실천 가능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됨 - 최우수상은 '공룡 발자국 따라 걷는 탄소중립 생태코스 조성' 아이디어가 차지함. 연천군의 지질 및 생태 자원을 활용해 친환경 관광과 주민 참여형 탄소중립 실천을 연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음 - 전미애 센터장은 이번 공모전이 주민들의 생활 속 아이디어를 모으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함. 수상작들은 향후 군정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책포럼에서 발표될 예정임.원문 제목: 연천군 유네스코 연천 탄소중립 군정 아이디어 공모전 성료
	□ 관악구, 청소년이 직접 제작한 탄소중립 영상으로 지역사회 실천 유도(2025.10.13) - 서울 관악구가 지역 내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탄소중립 청소년 인플루언서 양성 교육' 과정을 운영함. 이 프로그램은 환경과 미디어를 융합한 참여형 교육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교육은 환경 이론과 영상 기획·촬영·편집 등 실습 과정으로 구성되며, 9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총 12회에 걸쳐 진행됨. 관악구에 거주하는 초·중·고생부터 중학생까지 10명의 청소년이 참여하고 있음 - 구는 이 외에도 '관악구 환경교육 상담 콜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온라인 정보교류 플랫폼 운영, 사회환경교육 강사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관악형 환경교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육 기반을 강화하고 있음.원문 제목: 관악구 청소년 직접 만든 탄소중립 영상 지역사회 실천 유도
	□ 구미시, 대한민국 1호 탄소중립 산단 조성으로 에너지 혁신 도시 도약(2025.10.13) - 경북 구미시가 '대한민국 1호 탄소중립 산단' 조성으로 에너지 복지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도시로의 도약을 추진함. 시는 탄소중립 기반 구축, 재생에너지 보급, 전력망 확충 등 미래 에너지 전략을 본격적으로 실행함 -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선정으로 총 1,302억 원을 확보하여 구미국가산단 내 태양광 발전, ESS, 지능형 전력거래 시스템 등을 도입함. 이를 통해 RE100과 탄소국경조정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임 - 에너지 복지 정책으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과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병행하며, 천연가스 발전소 완공으로 지역 에너지 자급률을 대폭 상승시킬 예정임. 김장호 시장은 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에너지 정책을 강조함.원문 제목: 구미시, 1호 탄소중립 산단으로 에너지 혁신 도시 도약
	□ 청송군의의회, 임시회에서 탄소중립 기본계획 등 주요 현안 처리(2025.10.14) - 청송군의의회가 제284회 임시회를 열고 '청송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총 3건의 조례 및 계획안을 원안 가결함.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시재생, 환경, 민생회복 등 군정 주요 과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됨 - 특히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가 이어짐. 의원들은 계획의 실행 가능성과 지역 실정 반영 여부를 점검하며, 단순 선언을 넘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구체적 로드맵 마련을 요구함 - 심상휴 의장은 산불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의회가 민생 회복을 최우선에 둘 것임을 강조함. 군의회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원문 제목: 청송군의의회 “현장에서 답 찾는다” …탄소중립·재해대응 조례 잇따라 통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포항시 탄소중립지원센터,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주제로 포럼 개최(2025.10.15) - 포항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10월 27일 한동대학교에서 '순환경제, 녹색성장 전략과 미래'를 주제로 하반기 포럼을 개최함. 이번 포럼은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 경제적 접근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됨 - 김정인 중앙대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박주영 서울대 교수가 순환경제의 탄소 저감 효과에 대해, 최지원 기후변화센터 사무국장이 시민 주도 탄소중립 실천 혁신에 대해 강연할 예정임 -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제품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기법인 'LCA 전과정평가'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임. 시민들이 탄소중립 달성 방법과 순환경제 모델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됨. 원문 제목: 포항시 탄소중립지원센터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포럼 개최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대통령실, '모두를 위한 AI' 전략과 글로벌 AI 3강 연대 구상 발표(2025.10.10) - 대통령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정부의 '모두를 위한 AI'는 정부가 직접 AI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학교 등 누구나 AI를 만들고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힘. AI를 이용해 지역, 소득 등 각종 격차를 극복하는 AI 기본사회 조성을 목표로 함 - 한국은 미국, 중국 외에 에너지, 반도체, 클라우드 기술 등 '폴스택'을 갖춘 유일한 국가임을 강조함. 제조업의 AI 전환이 강점이며, 이를 위해 부족한 GPU 확보를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음을 설명함. 원천 기술 능력 역시 세계 3위 수준임을 자신함 - 종합 3위가 아닌 '3강'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위해 한국이 중심이 된 AI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동맹 구축을 구상 중임. 싱가포르, 일본 등 미국과 중국에 종속되기 싫은 나라들과 연대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는 경쟁 체제 구축을 APEC 등에서 논의할 것을 기대함
	□ 한미동맹의 AI 전환, 국방비 증액으로 국방 AI 생태계 조성 필요(2025.10.10) - 한미 정상회담 이후 국방비 증액이 합의되면서, 증액분을 AI 국방 분야 첨단 시스템과 무기체계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단순 무기 구매를 넘어 '한미 동맹의 AI 전환'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임 - 우리 군의 AI 국방 전환 과제는 AI 기반 지휘통제체계, 유무인 복합체계, 정보·감시·정찰(ISR) 역량 고도화 등이며, 이는 모두 한미 동맹과 연동됨. 이 과정에서 미국 AI 방산업체의 국내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음 - 미국의 첨단 AI 기술 도입과 자체 기술 개발 사이에서 고민이 필요함. 외국 기술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경계하고, '소버린 AI' 개념처럼 자체 국방 AI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 경쟁력 있는 AI 방산 육성이 시급한 과제임
	□ 기재부, 외청과의 협업 강화로 AI·현장안전 등 행정혁신 추진(2025.10.10) - 기획재정부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등 외청과의 협업을 강화해 국민 체감형 정책 성과 창출에 나섬. 구윤철 부총리는 새 정부 첫 외청장회의에서 긴밀한 협업을 주문함 - 특히 현장 안전관리 강화와 AI 도입을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을 강조함. 재난대응 매뉴얼을 전면 점검하고, 외청이 AI 도입과 활용을 선도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함 -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승격된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회의는 3개 외청 중심의 협업 체계를 재정립하는 의미를 가짐. 기재부는 외청장회의 및 기획조정관 회의를 정례화하여 협업체계를 제도화할 방침임
	□ 경기도, AI·바이오 산업 생태계 전략 필요성 강조(2025.10.10) -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이 인공지능, 바이오 등 전략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모색 중임을 밝힘. 생성형 AI 활용과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장기적 전략과 정책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함. 도와 함께 실행 가능한 구체적 기준 및 절차 수립과 도민 일상과 연계되는 정책을 고민함 - 현장 기업이 체감하는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함. 현재 AI나 바이오 분야의 개별 지원은 많으나, 이를 생태계로 엮는 전략이 부족하다고 지적함. 도내 연구기관, 산업단지, 대학 등과의 협업 체계를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을 부연함 - 미래 전략산업 예산의 제한적 규모를 지적하며, 단기적 민생 지원과 미래 경쟁력 간의 균형 있는 자원 배분을 점검할 것을 밝힘. 하반기 의정활동에서는 치매환자 공공치과병원 설립과 공공후견제도 조례 개정 등을 역점 추진할 계획임
지자체	□ 강원도, 동절기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시행(2025.10.10) - 강원특별자치도가 동절기를 맞아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FMD) 확산 방지를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함. 이번 대책은 철새도래지 및 가금농장 방역 강화와 구제역 백신 접종 시기 조정 등 고강도 조치를 포함함 - 고위험 철새도래지 10곳을 축산차량 출입 통제구간으로 지정하고, 소독차량 34대를 동원해 집중 소독을 실시함. 또한 대규모 산란계농장 통제초소 설치와 가금 이동승인서 유효기간 단축 등 다각적 방역 조치를 추진함 - 구제역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 시기를 9월로 앞당기고 12개월령 이하 소 항체 검사를 강화함. 발생 시에는 차등적 살처분 기준을 적용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임. 도는 축산농가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함
	□ 전북, 피지컬 AI로 제조업 한계 극복 및 성장동력 확보(2025.10.10) -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제조업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피지컬 AI를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주목함. 영세성, 산업 편중, 수출 구조 불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임 - 피지컬 AI는 물리적 제조 과정에 AI와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는 것으로, 다품종 소량생산 구조의 전북 제조업에 적합한 기술임. 높은 1차 산업 비중을 활용한 '농업-제조업 융합' 모델 구축에 유리한 조건을 갖춤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전북은 상용차 생산 기반을 바탕으로 농기계 제조와 스마트팜을 통합한 지능형 시스템을 구축 중임. 군산항, 새만금항 등 항만 물류 분야에도 퍼지컬 AI를 확장해 스마트 물류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나설 방침임
	□ 춘천시, AI·양자·바이오 융복합 대전환 심포지엄 개최(2025.10.10) - 춘천시와 강원일보가 차세대 핵심 산업인 'AI·양자·바이오'의 융복합을 위한 '춘천 바이오산업 대전환 심포지엄'을 개최함. 이번 행사는 10월 14일 춘천ICT벤처센터에서 열릴 예정임 - 심포지엄은 전문가 사례 발표를 통해 산업 집단 간 이해를 높이고, 산학연관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책 및 기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임. 춘천시의 첨단 산업 중심 도시 도약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최양희 한림대 총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정현철 (주)노르마 대표이사 등 여러 전문가의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이 진행될 예정임.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함
	□ 강원특별자치도, 'AI 팩토리 선도 프로젝트' 선정으로 국비 44억 확보(2025.10.10) - 강원특별자치도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AI 팩토리 선도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44억 원을 확보함. 이는 다양한 제조 현장에 AI 로봇과 장비 등을 도입하는 국가전략 프로젝트의 일환임. 강원도는 2년 연속 관련 사업에 선정됨 - 이번 과제는 강원도, 동해시, LS전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이 공동 기획함. 복잡한 해저케이블 생산공정에 AI를 적용하여 설비 효율을 극대화하고 생산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해저케이블 생산공장의 모든 데이터를 가상환경(디지털 트윈)에 복제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운전 방법을 찾는 AI 모델을 개발할 예정임. 김진태 지사는 AI 팩토리 도입이 지역 제조업 경쟁력 강화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APEC 앞두고 중국 방문하여 경제 협력 논의(2025.10.12)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APEC CEO 서밋을 앞두고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로 방문함. 이번 방문은 APEC의 성공적 개최와 한중 비즈니스 협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행보임 - 최 회장은 허리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런홍빈 CCPIT 회장 등과 만나 양국 경제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민간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함. 특히 AI, 반도체, 탄소중립, 글로벌 공급망 등에서의 협력을 강조함 - CCPIT는 이번 APEC CEO 서밋에 100명 규모의 기업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며, 이는 양국 기업 간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최 회장은 이번 서밋이 양국 경제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원문 제목: 보름 앞 APEC CEO 서밋…최태원, 中 찾아 “AI·반도체·탄소중립 협력 “
지방기관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회,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개최(2025.10.12)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회가 문암생태공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을 개최함. 이번 행사는 기후 위기 시대에 지역사회가 함께 생활 속 실천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됨 - 청년회 회원 30여 명이 참여하여 꽃모종 심기 체험행사와 함께 일회용품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 분리배출 생활화 등 탄소중립 실천을 장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함 - 박영규 청년회장은 탄소중립이 일상 속 작은 실천에서 시작됨을 강조하며, 앞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함. 원문 제목: 자유총연맹 청주시지회 “탄소중립 실천 다함께“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해당 없음)
지방기관	- (해당 없음)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iM뱅크, 1100억 원 규모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으로 탄소중립 금융 지원 강화 (2025.10.13) - iM뱅크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1,1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K-Green Bond)'을 발행함. 이번 채권 발행은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됨 - 조달된 자금은 2차전지 배터리 제조, 태양광 발전소, 토양정화시설 등 환경 개선 효과가 있는 녹색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정임. 발행에 앞서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ESG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외부 평가기관의 적합성 검토를 받음 - iM뱅크는 이번 녹색채권 발행을 시작으로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등 다양한 ESG 채권 포트폴리오를 확대하여 친환경 프로젝트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할 계획임. 원문 제목: iM뱅크, 1100억 규모 ‘한국형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녹색채권' 발행...탄소중립 금융 지원 강화
대학교	- (해당 없음)
해외	- (해당 없음)
기타	- (해당 없음)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LG 3사, '원 LG' 통합 솔루션으로 AI 데이터센터 시장 공략 가속(2025.10.10) - LG전자, LG CNS, LG에너지솔루션 3사가 '데이터센터 월드 아시아 2025'에 참가하여 '원 LG' 통합 솔루션을 선보임. AI 데이터센터에 최적화된 냉각, DBO 역량, 전력 시스템을 결합해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함. 이는 3사 최초의 공동 부스 운영임 - '원 LG' 통합 솔루션은 그룹 내 핵심 역량을 결합한 결과물로, 인도네시아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에 공급되는 등 실질적 사업으로 연결됨. LG전자는 칩 직접 냉각 방식의 CDU 신제품과 에너지 손실을 줄이는 DC 기반 냉각 솔루션 등을 공개함 - LG CNS는 데이터센터 설계·구축·운영 전 과정을 소개하고, 차세대 모델인 'AI 박스'를 선보임. LG에너지솔루션은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갖춘 UPS 제품을 전시함. 3사는 고효율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통합 솔루션으로 글로벌 시장 입지를 강화할 계획임
	□ 에코프로, AI 자율제조 통해 2027년까지 생산성 30% 향상 목표(2025.10.10) - 에코프로가 AI 자율제조 국책과제 2차년도 워크숍을 통해 2027년까지 생산성을 30% 향상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함. 이는 AI 기반의 품질 예측과 실시간 데이터 수집을 통해 달성할 계획임. 1차년도 연구를 통해 이미 품질예측 AI 모델 개발을 완료함 - 2차년도에는 설비 및 로봇의 자율제어, AI 기반 품질예측 정확도 90% 달성, 실시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간 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등 핵심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계획임. 이를 통해 전사 주요 업무 시스템의 AI 전환을 목표로 함 - 에코프로비엠은 원료 투입량 자율제어를 위한 센서, 자율이동로봇(AMR) 도입 등 스마트 설비를 적용해 공정 자동화와 실시간 데이터 확보를 추진함. ETRI, 미소정보기술 등과 협력해 AI 품질예측 모델링 및 데이터 플랫폼을 고도화할 방침임
	□ 빅테크, 피지컬 AI 시대 주도 위해 로봇 기업 인수 활발(2025.10.10) - 소프트뱅크그룹이 스위스 ABB의 로봇 사업부 인수를 발표하며 '피지컬 AI'를 다음 성장 동력으로 선언함. 이번 인수는 AI와 로봇을 융합해 AI 개발 분야의 핵심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의 일환임 - 손정의 회장은 '인간보다 1만 배 똑똑한 초인공지능(ASI)' 개발 목표를 위해 ARM, 오픈AI 지분에 이어 로봇 제조회사까지 확보함.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양 날개를 갖추고, AI 로봇 산업단지 구축 계획을 구체화함 - 퀄컴 또한 이탈리아의 오픈소스 하드웨어 기업 아두이노 인수를 발표함. 이는 로봇 등 미래 하드웨어 생태계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AI 발전에 따른 로봇 시장 성장을 보고 유망 기업 인수에 서두르고 있음을 보여줌
	□ 젠슨 황, AI 산업 성장 낙관론에 국내 HBM 기업 수혜 전망(2025.10.10) -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최근 컴퓨팅 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언급하며 AI 산업에 대한 낙관론을 재확인함. 이는 AI 서버 핵심 부품인 HBM을 공급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직접적인 수혜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강화함 - AMD와 오픈AI의 대규모 협력은 AI 가속기 투자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인식을 보여줌. AI 연산에 필수적인 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됨 - HBM은 AI 가속기 가격의 10~15%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임. 삼성전자는 AMD에,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HBM을 공급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JP모간은 AI용 D램 시장이 2027년 112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누비랩, AI 급식관리 플랫폼 '쌈쌈머니' 인천대에 도입(2025.10.10)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AI 푸드테크 기업 누비랩이 인천대학교 학생식당과 기숙사 식당에 AI 급식관리 플랫폼 '썹썹머니'를 도입함. 이 솔루션은 AI로 식습관과 잔반 데이터를 분석해 음식물쓰레기를 절감하는 ESG 경영 솔루션임 - '썹썹머니'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리워드로 환원하여 자발적인 잔반 절감을 유도하는 방식임. 이전 도입 기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최대 40%까지 절감하는 효과가 검증됨. 인천대 학생과 교직원들은 건강한 식단 형성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받음 - 이번 도입은 인천강소특구와의 협업으로 추진되었으며, AI 기반 환경관리 기술의 대학 현장 확산 모델을 구축함. 김대훈 대표는 AI 기술로 학생들의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밝힘
	□ 오픈AI, 전남에 데이터센터 구축 MOU 체결로 지역 산업 기대감 상승(2025.10.10) - SK그룹과 오픈AI가 전남에 AI 데이터센터 구축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이는 전남의 AI 및 재생에너지 산업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기념비적인 투자가 될 것이란 기대를 모음 - 데이터센터는 GPU 1만 개 규모로 시작될 예정이며, 협력 상대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라는 점에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후보지로는 태양광 발전 시설과 냉각수를 갖춘 기업도시 '솔라시도'가 유력하게 거론됨 - 오픈AI 데이터센터 유치는 전남의 미래 먹거리인 AI와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자연스럽게 이끌 전망이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RE100 산업단지 조성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 코난테크놀로지, 자체 LLM 기술력으로 AI 시장 공략(2025.10.10) - 코난테크놀로지가 AI 모델 개발 전 과정을 자체 수행할 수 있는 '풀스택' 회사로서의 강점을 부각함. 국내 최초로 엔비디아 H100 GPU를 도입해 독자 거대언어모델(LLM) '코난 LLM'을 개발하는 성과를 거둠 - 올해 3월에는 국내 최초로 범용과 추론 기능을 통합한 'ENT-11' 모델을 출시함. 이 모델은 타사 대비 GPU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여 비용 효율성을 높였으며, 초대형 모델인 덤시크 R1보다 작은 규모에도 유사하거나 더 높은 성능을 보임 - GS 인증 1등급을 획득한 RAG 솔루션 '코난 RAG-X'를 통해 기업 내부 문서와 실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시간 외부 정보를 연동하여 정확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확보함. 국방 분야를 포함한 정부 및 대기업 사업 수주를 통해 국내외 시장 확대를 목표로 함
	□ AI 메모리 수요 폭증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3분기 실적 기대감 고조(2025.10.10) - AI와 데이터센터 시장의 폭발적 성장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전망이다. 두 회사 모두 분기 영업이익 10조 원 돌파 가능성이 제기됨 - HBM, DDR5 등 고부가가치 메모리 제품의 수요가 급증하며 메모리 단가가 상승하는 '슈퍼 사이클'에 진입했다는 분석임. 미국 마이크론의 깜짝 실적 발표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 예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오픈AI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등 글로벌 AI 인프라 확장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해당 프로젝트로 인해 HBM 등에서 100조 원이 넘는 신규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됨
	□ 오픈AI발 메모리 수요 폭증, 슈퍼사이클 속 시장 경쟁 구도 변화 예고(2025.10.10) - AI 시장 확대로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오픈AI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메모리 공급 의향서를 체결하고 AMD와 대규모 AI 가속기 공급 계약을 맺음. 이는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임 - 오픈AI가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HBM 직거래 및 AMD와의 협력 등 공급망 다변화에 나섰다는 분석임. 이에 따라 AMD의 HBM 주력 파트너사인 삼성전자의 수혜가 예상됨 - 이번 계약으로 '엔비디아·SK하이닉스' 연합에 'AMD·삼성전자' 연합이 강력한 도전장을 내미는 구도가 형성됨. 엔비디아의 독점 시대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한 경쟁 시대가 시작되면서, 삼성과 SK의 기술 및 가격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 파인더스에이아이, 비전 AI로 무인매장 보안과 결제 문제 동시 해결(2025.10.10) - 무인점포 절도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파인더스에이아이가 비전 AI를 활용한 무인 매장 관리 솔루션으로 해결책을 제시함. 고객 추적, 선반 센서 변화 감지 등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종합적으로 판단해 도난 여부를 파악함 - 이 솔루션은 AI 비전 기술을 기반으로 결제, 재고 관리 시스템까지 통합 분석하여 '누가' 절도했는지까지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임. 창업 초기 유통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개발한 시스템이 보안 문제까지 해결하게 됨 - AI 자동 계산대(VCO) 솔루션은 카메라가 상품 종류와 개수를 자동으로 파악해 계산하며, '밀장빼기'와 같은 행위를 방지함. 99% 이상의 정확도를 바탕으로 국내 프랜차이즈 및 편의점, 그리고 일본 등 해외 시장으로 확대를 계획 중임
	□ 파인더스에이아이, 비전 AI로 무인매장 보안과 결제 문제 동시 해결(2025.10.10) - 무인점포 절도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파인더스에이아이가 비전 AI를 활용한 무인 매장 관리 솔루션으로 해결책을 제시함. 고객 추적, 선반 센서 변화 감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도난 여부를 파악함 - 이 솔루션은 AI 비전 기술을 기반으로 결제, 재고 관리 시스템까지 통합 분석하여 '누가' 절도했는지까지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임. 창업 초기 유통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개발한 시스템이 보안 문제까지 해결하게 됨 - AI 자동 계산대(VCO) 솔루션은 카메라가 상품 종류와 개수를 자동으로 파악해 계산하며, '밀장빼기'와 같은 행위를 방지함. 99% 이상의 정확도를 바탕으로 국내 프랜차이즈 및 편의점, 그리고 일본 등 해외 시장으로 확대를 계획 중임
	□ 프로티나, PPI 빅데이터 기반 AI로 바이오메터 시장 공략(2025.10.10) - 바이오의약품 AI 디자인 기업 프로티나가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PPI) 빅데이터를 통해 '바이오메터' 영역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함. 자체 스피드(SPID) 플랫폼 기술로 PPI 데이터를 단기간에 대량 생산할 수 있음 - 대량의 PPI 데이터는 기존 약보다 효능이 월등한 약을 개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함. 이를 이용하면 4주 만에 약의 개량이 가능하며, 특허 회피와 약효 증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을 실험으로 증명함 - 프로티나는 PPI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체 AI 모델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며, 연말에 서울대 연구팀과 협력한 모델을 발표할 예정임. 매출 또한 빠르게 성장하며 2027년부터는 바이오배터 후보물질 기술이전을 본격화할 계획임
	□ LG유플러스, 홈 서비스 현장에 자체 개발 'AI 업무 비서' 도입(2025.10.10) - LG유플러스가 자체 개발한 통신 특화 소형언어모델 '익시젠'을 기반으로 한 '홈 서비스 AI 업무 비서'를 현장에 도입함. 이는 직원 업무 효율성과 고객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기 위한 조치임 - 이 시스템은 400여 건의 업무 매뉴얼을 학습해, 현장 직원이 대화형으로 질문하면 표준화된 해결 방안을 즉시 제공함. 이를 통해 문제 해결 속도를 단축하고 전국 어디서든 일관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 - 현장 기사들은 AI가 제시한 해결책을 고객에게 직접 설명하며 서비스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임. LG유플러스는 향후 AI 비서 기능을 장애 처리를 넘어 고객 맞춤형 혜택 안내 등으로 고도화할 계획임
	□ 그리다에너지, 'AI TECH+ 2025'에서 미래 에너지 운영기술 공개(2025.10.10) - 에너지 ICT 전문기업 그리다에너지가 광주에서 열리는 'AI TECH+ 2025'에서 AI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에너지 운영기술을 선보임. 지능형 에너지 운영 및 절감 기술을 중심으로 디지털 트윈 기반 콘텐츠를 전시함 - 그리다에너지의 '지능형 에너지운영시스템'은 실시간 에너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에너지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급하는 기술임. AI 기술은 잉여 에너지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사용하는 효율적 관리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함 - AI 산업 발전 자체가 막대한 에너지 공급을 필요로 하므로, 에너지 산업과 AI 산업은 상호 보완적 관계임. 그리다에너지는 AI 기반 에너지 운영 시스템으로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에너지 프로슈머 중심의 환경을 강조함
	□ 현대차-플러스AI 협업 무인 수소트럭, 타임지 '최고 발명품' 선정(2025.10.10) - 현대자동차와 미국 자율주행 스타트업 플러스AI가 공동 개발한 무인 수소전기트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력이 타임지가 선정한 '2025 최고의 발명품'에 이름을 올림. 미래 잠재력에 중점을 둔 '실험적' 분야에 선정됨 - 이 차량은 현대차의 수소전기트럭 '엑시언트'에 플러스AI의 레벨4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슈퍼 드라이브'를 결합한 것임. 레벨4는 특정 조건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차량이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단계임 - 타임지는 두 회사의 기술 결합이 배출가스 감축, 운전자 부족, 비용 절감이라는 트럭 운송 업계의 3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평가함. 현대차는 수소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힘
	□ 국내 통신 3사, 'K-인공지능(AI)' 주도권 확보 경쟁 본격화(2025.10.11) - 국내 통신 3사가 AI 주도권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자체 개발 및 컨소시엄을 통해 한국형 거대언어모델(LLM)을 고도화하고 있음 - SK텔레콤은 자체 LLM 'A.X 4.0'을, LG유플러스는 '엑사원 3.5' 기반 sLM을 공개함. KT는 MS와 협력해 GPT-4o 기반의 한국형 AI 모델 'SOTA K'를 선보이며 글로벌 기술기업과의 협업 전략을 강화함 - AI 기술 경쟁은 LLM을 넘어 AI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경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임. SK그룹은 오픈AI와, LG유플러스와 KT는 자체적으로 데이터센터 건립 및 투자를 통해 AI 생태계 지원과 선제적 수익화에 나서고 있음
	□ 한양대 ERICA, BK21 사업 선정으로 피지컬 AI 인재 양성 가속(2025.10.10) - 한양대 ERICA의 '지산학연 중심 피지컬 AI 교육연구단'이 교육부 '4단계 BK21 혁신인재 양성사업' AI 분야에 추가 선정됨.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연간 약 8억 원의 연구 및 교육 재원을 지원받게 됨 - 교육연구단은 로봇, 제조, 모빌리티 등 산업 대전환 분야에 맞춘 피지컬 AI 핵심 기술 개발과 현장 맞춤형 교육 및 연구를 강화할 계획임. 석·박사 연구장학금, 국제학술 활동 지원, 산학 공동프로젝트 연계 기회 등을 제공함 - 전 세계 18개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해 글로벌 공동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고, '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대학교	인더스트리 5.0' 시대를 이끄는 퍼지컬 AI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함. 이는 정부의 'AI 3대 강국' 비전과도 연계됨
	□ KAIST 경영대학, AI·데이터 시대의 융합형 인재 양성 선도(2025.10.10) - KAIST 경영대학이 사회 및 경영 트렌드 변화에 맞춰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기업 가정신, 디지털금융 관련 커리큘럼을 강화하며 융합형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음 - AI 융합 역량을 갖춘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인재 양성을 위해 '글로벌 데이터 융합 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함. 학생들에게 AI 기반 비즈니스 응용에 집중한 해외 교육 및 글로벌 기업 데이터 기반의 프로젝트 기회를 제공함 - 쿼트, 핀테크 중심의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해 국내 최대 규모의 트레이딩센터로 기반으로 실습 경험을 제공하고, 10억 원 규모의 학생투자펀드를 직접 운용하게 함. 지원자의 상황에 맞춰 다양한 풀타임 및 파트타임 과정을 운영함
	□ 상지대, 강원지역 최초로 AI 관련 최고경영자과정 개설(2025.10.10) - 상지대학교가 강원지역 최초로 'AI 시대의 경영전략'을 주제로 한 최고경영자 과정을 개설함. 이 과정은 AI를 경영 전략, 신사업 모델, 조직 문화 혁신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다룸 - AI 시대의 전략적 의사결정, 기업의 AI 전환 로드맵 수립 등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됨.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박창기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장 등 국내 최고 전문가 그룹이 멘토링을 맡을 예정임 - 상지대는 AI융합교육혁신원을 중심으로 AI 교육 혁신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과정을 통해 미래 경영의 지도를 그리는 리더들에게 지혜와 실천적 도구를 제공하고 자 함. 과정은 10월 22일부터 3개월간 진행됨
	□ 세종대 산업대학원, 부동산AI융합학과 신설 및 2026 전기 석사 모집(2025.10.11) -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이 100% 온라인으로 정규 석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2026학년도 전기 1차 신입생을 모집함. 바쁜 직장인과 취업 준비생에게 최적화된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음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 특히 기존 '부동산·자산관리학과'를 '부동산AI융합학과'로 개편하여 부동산 분야에 AI와 정보기술을 접목한 교육을 강화함. 해당 학과는 부동산학과 부동산AI 전공으로 세분화하여 미래형 전문가를 양성함 - 온라인 수업 외에도 원우회 활동, 학술 세미나, 해외 워크숍 등 오프라인 교류 활동을 통해 지식, 네트워크, 실무 역량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해외	☐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중국, 희토류 통제 강화로 협상력 제고(2025.10.10) -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희토류 합금과 관련 기술까지 포함한 강도 높은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함. 이는 미국의 고관세 및 기술 제한 조치에 대한 대응이자,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됨 - 이번 조치는 희토류가 필수적인 AI,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로도 분석됨. 특히 중국산 희토류 기술을 이용해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까지 통제 대상에 포함시켜 미국의 정책과 유사한 방식을 취함 - 세계 주요 경제권이 공격적으로 무역 장벽을 쌓으면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양상임. 중국의 이번 조치는 반도체 등 국내 산업계에도 생산 차질 우려를 낳고 있으며, 불확실성과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 미국 증시, AI 거품론 논란 속에서도 반도체 주도 상승세 지속(2025.10.10) - IMF와 영국 중앙은행이 미국 증시의 조정 가능성을 경고했음에도, S&P500과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 이는 AI 산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연방정부 섣다운 등의 우려를 압도하고 있음을 보여줌 -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AI 관련 컴퓨팅 수요의 급증을 언급한 것이 호재로 작용하며 엔비디아 주가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함. 이에 미 증시가 2000년 닷컴버블과 유사하다는 'AI 거품론'도 함께 커지고 있음 - 'AI 거품론'에 대해 젠슨 황 CEO 등은 현재는 실질적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투자를 주도하고 있어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반박함. 산업적 혁신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이끄는 '좋은 거품'이라는 주장도 제기되며 찬반 논쟁이 팽팽함
	□ 인텔, 초소형 컴퓨터 플랫폼으로 피지컬 AI 시장 본격 공략(2025.10.10) - 인텔이 AI 노트북용 프로세서 '팬서레이크'를 탑재한 초소형 컴퓨터 플랫폼 시제품을 공개하며 피지컬 AI 시장 진출을 선언함. 이는 로봇, 물류, 의료 등 엣지 컴퓨팅 분야에서 엔비디아 '젯슨'과 경쟁할 것으로 예상됨 - 이 플랫폼은 한 손에 잡히는 작은 메인보드에 CPU, GPU, NPU가 통합된 프로세서를 탑재하여, 단순 데이터 처리뿐 아니라 AI 연산까지 수행할 수 있음.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거나 스마트시티의 AI 기반 도로 관제 인프라 구축 등에 활용될 수 있음 - 인텔은 이 시제품을 통해 고객의 피지컬 AI 제품 개발과 시장 출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함. 강력한 통합 프로세서로 경쟁사 대비 총소유비용(TCO) 절감 효과도 기대하며, 곧 공식 출시를 통해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예정임
	□ 블룸버그, 엔비디아가 일론 머스크의 xAI에 20억 달러 투자 보도(2025.10.10) - 블룸버그통신이 엔비디아가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xAI에 20억 달러(약 2조 8000억 원)를 투자한다고 보도함. xAI는 당초 계획보다 큰 총 2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이번 펀딩은 특수법인(SPV)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법인이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고 xAI가 이를 5년간 임대하는 구조임. 이는 GPU를 담보로 한 부채 형태로, 기술기업의 부채 부담을 줄이는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음 - xAI는 세계 최대 데이터센터 '콜로서스' 구축을 위해 필요한 엔비디아 GPU를 기존 10만 대에서 100만 대 수준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며, 이를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상황임
	□ 유럽 AI 스타트업, 대규모 투자 유치하며 기업가치 급등(2025.10.10) - 유럽 전역에서 AI 스타트업을 향한 대규모 투자 열기가 이어지며, '유럽판 AI 르네상스'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옴. 특히 프랑스, 영국, 독일을 중심으로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대규모 투자가 집중됨 - 독일의 AI 워크플로우 자동화 스타트업 '엔에잇엔'은 최근 25억 달러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며 시리즈C 투자를 유치함. 이는 1년 전보다 7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임. 프랑스의 '미스트랄AI'도 19조 원 규모의 밸류를 인정받음 - 올해 유럽 AI 스타트업에 유입된 글로벌 자금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함. 이는 각국 정부의 'AI 주권' 강화 움직임과 산업 현장 중심의 AI 수요, 글로벌 기술기업의 유럽 집중 투자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됨
기타 기타	□ AI 기술의 버블 논쟁과 혁신의 양면성 분석(2025.10.10) - 최근 AI 기술에 대한 기대감과 자본이 집중되면서 'AI 버블론'이 대두됨. MIT 보고서에 따르면 생성 AI 도입 기업의 95%가 실질적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어, 과거 닷컴 버블 당시의 '수익 없는 성장' 구조와 유사함이 지적됨 - 블룸버그는 현재의 투자 과열이 거품 형태를 보이지만, 새로운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는 긍정적 자금 조달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함. 과열된 투자가 위험인 동시에 다음 혁신의 비용을 지불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해석임 - AI 버블 논쟁의 본질은 과열과 혁신의 이분법이 아님. 닷컴 버블 이후 구글, 아마존이 탄생했듯, 현재의 AI 버블 논쟁 끝에서도 새로운 질서와 혁신이 나타날 것임. 냉정한 분석과 균형 잡힌 시선으로 버블 이후의 진짜 혁신을 준비해야 함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